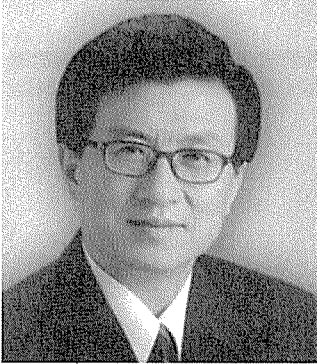


# 취 임 사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신기남

지식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제20대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된 신기남입니다.

21세기 우리 인류는 '지식정보혁명'의 대전환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사회라는 인류 문명사에 전례 없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인류사회의 변화를 연구해온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인프라, 정보 유통과 가공의 속도와 범위, 문화창조력 등이 만들어 낼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의 힘'이 새로운 사회의 핵심 경쟁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기반한 경쟁이 인류사회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높은 지식수준과 창의적 문화역량을 갖고 있는 민족이 더욱 잘 살게 되고, 인류사회를 주도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전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의 발전상은 매체나 광고 등에서 접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컴퓨터나 휴대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여 초고속통신망 구축·벤처기업 육성·IT인재 양성 등 IT 진흥 정책을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선진국 어느나라도 부럽지 않을 정보통신 발전의 기반을 가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가장 중요한 원칙 한가지를 도외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콘텐츠 진흥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근간인 '국민의 지적 창조력'은 '책'과 '정보자료'를 풍부하게 접할 수 있는 사회 여건과 문화풍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정보강국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온 핀란드의 예를 들면 도서관의 수를 미국의 8배, 일본의 15배로 확충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장서수도 미국, 영국, 일본의 3배가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을 살찌운 핀란드는 유럽의 변방국가를 넘어 세계 경쟁력 6위로 도약하며 정보통신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우리의 공공도서관의 수는 프랑스, 캐나다의 1/10, 영국의 1/15, 독일의 1/50에 불과하며 스페인, 터키, 말레이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출판산업은 고사 직전이고, 국민들은 책을 한 달에 채 한 권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척박한 독서문화, 부족한 도서관콘텐츠 여건에서 국민의 지적창조력이 꽃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보강국의 건설에 있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도서관콘텐츠 확충과 독서문화 진흥에 매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가지를 약속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이 우리사회의 창조성과 문화수준을 결정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인프라인 점을 인식하고, 도서관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함께 전력을 다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을 위한 국가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저함이 없이 다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 명칭을 평생학습관 등으로 바꿔 관장 및 사서직을 줄이는 문제 등 제기되는 현안은 신속히 해결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구협의회·관중별 협의회의 활동을 정착시켜 도서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며, 무엇보다 “IFLA 2006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서관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홍보에 우리가 앞장서며 국민의 지지를 모아 우리사회의 지식정보 운용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도서관을 ‘디지털시대’에 알맞게 변화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도 펼쳐야 합니다. 이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능동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길 속에 우리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그 길을 가기 위해 먼저 도서관과 독서 진흥이 필요합니다. 이 막중한 과업이 우리의 두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냅니다. 우리민족의 미래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도서관을 진흥시키고 독서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지식기반사회를 튼튼히 살찌웁시다. 감사합니다.